

투데이 칼럼

도심 속 비둘기의 비극

도심 속 비둘기가 위기를 맞았다. 어느 70대는 15년째 자신의 집 옥상을 찾는 비둘기에게 매일 밥과 물을 챙겨주고 있다. 새들은 이곳에서 배를 채우고 목욕을 하고 한다.

그러나 이웃 주민과의 갈등도 겪었다. 한 주민이 독을 섞은 것으로 추정되는 비둘기 기피제를 옥상과 마당에 던져놓는 일이 있었다. 상당수 비둘기들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 비둘기에게 밥을 주는 모임을 만든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동물법)이 개정되면서 동물보호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으로 칭송받았다.

1980년대에는 교황 미사 등 각종 행사에 비둘기를 날려 보냈다.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 준비를 위해 비둘기 기르기를 장려까지 했다. 하지만 비둘기는 다른 조류에 비해 비교적 번식 성공률이 높다.

수가 늘면서 건물 부식, 문화재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결국 2009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다. 민원은 배설물·기혈(41%)이 가장 많다. 동물



정복규  
논설위원

단체들은 먹이주기 금지보다 밥을 많이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일 사료는 까치, 참새 등 다른 야생동물 등 주변 생태계에 위협이 있다. 비둘기의 개체 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무조건 제거나 혐오가 아닌 이를 최소화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한다. 한때는 비둘기 집을 지어주는 운동도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비둘기는 유 해 조수가 되고 말았다.

비둘기는 전 세계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새 중 하나다. 수명은 10년에서 20년 정도로 꽤 긴 편이다. 흔히 평화의 상징이라고도 한다. 특히 하얀 비둘기가 주로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이진 연합군은 전후 처리를 위해 여러 회의를 개최하였다. 여러 가지 전쟁 방지용 제도를 만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비둘기를 심볼로 그려 넣었다.

UN의 목표는 세계 평화였다. 그러면서 연합군 의사회 심볼로 통상용 비둘기가 선정됐다. 그 뒤 평화를 주장하는 입장을 포함하는 정치적 운전과를 비둘기파로 부르기도 한다.

강경파는 맹금류인 매에서 뜻을 딴 매파로 불린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비둘기를 비답이라고도 불렀다. 비둘기는 의외로 예로부터 기력이 존재하는 새이다.

그러나 요즘 말하는 비둘기는 현재의 잡비둘기가 아닌 옛비둘기이다. 그래서 그런지 까치와는 다르게 한국적인 새라는 느낌은 적은 편이다. 올림

픽 평화의 상징 같은 느낌으로 서양적인 새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다.

반면 옛비둘기는 토종 비둘기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비둘기는 영리하고 갈들이기 쉬워 이론상 반려조로 최적인 새다. 하지만 외모가 호불호로 갈리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상당하다.

비둘기는 귀소 반응이 있으며 잘 가에 능숙하다. 새장이나 집안에만 가둬두고 키울 필요가 없다. 아침에 밥주고 우리를 열면 하루 종일 원하는 만큼 돌아다니다가 저녁 먹을 때 알아서 돌아온다.

이처럼 비둘기는 인간과 함께 살면서 옛날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인간이 키우던 비둘기들이 비극을 맞고 있다. 야생화 하면서 도시에 자생하면서 '잡비둘기'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혐오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요즘 아파트 관리의 책에 화두는 비둘기 퇴치라고 한다. 안방 베란다에 있는 실외기 부근에 비둘기가 수시로 드나들면서 실외기 위와 바닥에 똥을 싸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좁은 곳에 앉아 있는 녀석들을 막대기로 툭툭 치면서 쫓아낸다. 그런데 민망하게 보였는지 더 자주 많이 몰려온다. 창문을 열면 도망가는 속도가 좀 빨라졌을 뿐 여전히 계속 제 집 드나들듯이 찾아온다.

독자제언

꽃길 주행을 위한 이륜차 안전수칙 준수

따뜻한 봄날씨를 맞이하며 가벼워지는 옷차림과 함께 벚꽃길을 따라 주행하는 이륜차들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이륜차는 근거리 이동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며,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고 편리한 만큼 운전자들은 이륜차 안전수칙을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총 6만511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1,468명(약 2.4%)이 사망, 이는 승용차 사고 사망률인 0.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률은 6.4%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이륜차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총 7만7,434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들 중 중상자는 1만8,677명(24%)으로 승용차 사고로 인한 중상자 비율인 18%보다 높아 운전자에게 더 큰 위험

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륜차 사고가 더 치명적인 이유는 이륜차 특성상 자동차보다 안전장치가 부족하고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쉬우며 사고 발생 시 이륜차 운전자가 온전히 충격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륜차 운전자는 주행 시 반드시 안전모를 비롯해 장갑, 운동화 등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인도·휠단보 등 보행로 침범하지 않기, 야간에는 전조등을 켜고 주행하기, 주취 상태로 주행하지 않기, 주행 시 휴대전화나 이어폰 등의 사용을 삼가 도로 위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올바른 주행 습관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고창경찰서는 작년에 이어 이륜차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모 미착용 및 무면허 운행 등 법규위반에 대한 계도와 단속, 홍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박은지 고창경찰서모양지구대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브로맨스 과시하는 프랑스-브라질 정상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지난날 28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의 플라날투 대통령궁에서 다정한 포즈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설

의사 갑질과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 직원을 의사 집회에 동원하는 등 의료 현장의 '의사 갑질'과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직장인 익명 게시글 앱인 블라인드 등에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나 의료기기사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의, 노무, 환용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의료인 등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다.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의 신규 처방을 의료기관에 '의약품 채택료(텐딩비)' 명목으로 현금

을 제공하거나,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의사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

다. 의사와 제약사 영업사원의 갑을 관계에 따라 제약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차고 정리, 심부름 등의 편의·노무를 의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해당한다.

불법 리베이트 신고는 내부 고발이 많은 점을 고려했다.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신고자가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더라도 처벌이 감면될 수 있도록 '책임감면'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접수된 신고는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내부 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바란다.

와이식자재마트 기부 문화

전주 와이식자재마트 중화산 동점의 경로당 기부 문화가 칭송을 받고 있다. 와이식자재마트 중화산동점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을 현재까지 4년째 전주시에 경로당에 기부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그동안 12차례에 걸쳐 381개소 경로당 연인원 1만2천여 명에게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올해도 간편조리식품, 삼계탕, 백미, 라면 전달 등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해마다 '건강한 여름나기 영양 삼계탕 나눔', '무더위 함께 이겨요 경로당 어르신 복달임 복숭아 나눔', '명절맞이 이웃사랑 유과세트 나눔', '연말연시 힘내세요 이웃 사랑 라면 나눔'도 벌이고 있다.

설과 한가위 등 명절맞이 때는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를 통해 경로당 어르신들 떡국 봉사 등을 이어가고 있다. 연말에는 전주시 관내 경로당 100개소 경로당을 선정해 라면

100상자를 전달하기도 한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장 간편 식품 나눔'을 했다.

와이식자재마트 정동동 중화산동점 대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한다.

갈수록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노인 빈곤이 심하다.

찾아가는 경로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르신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관기관 발굴에 나서야 한다. 주변에는 일상생활 제원과 가족들의 왕래가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다. 힘들고 어려운 국내 경기 상황 속에서 선택 후원물품을 제공해 주는 와이식자재마트의 발전을 기원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